농림축산식품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 4. 11.(월)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4. 11.(월) 11:00
담당 부서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	책임자	과 장 양지연 (044-201-2051)
		담당자	사무관 정현주 (044-201-2052)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특별이사회 긴급 개최, 세계 식량 불안에 공동 대응 강조

주요 내용

□ **식량농업기구(FAO) 제169차 긴급 특별이사회 개최**(4.8., 현장·영상회의)

□ 이사국들은 식량농업기구가 로마 소재의 국제연합기구,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식량안보에 대응해 줄 것을 강조

□ 우리나라 대표단은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세계 식량 공급망의 기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월 8일 열린 제169차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특별이사회에 영상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세계 식량 불안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사국들의 소집 요청으로 개최되었으며, 49개 이사국을 비롯해 참관국, 국제기구 관계자 등 450여 명이 현장 및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참석하였다.

* 이사회는 총회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로 2년간 5회(정기) 개최하나, FAO 일반 규정에 따라 이사국 중 15개국 이상이 요청 시 긴급 개최 가능

먼저, 식량농업기구(FAO)는 2021년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시장에서 약 30%를 점유하고 있고, 50여 개국이 양국으로부터 최소 30% 이상의 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26개 국가는 필요한 밀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쟁 이전에도 식량 및 비료의 높은 가격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던 최빈 개도국,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식량 및 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더욱 취약한 상황이며, 북아프리카와 중앙·서아시아의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체 수입국 모색 등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에리트레아는 밀을 러시아(53%), 우크라이나(47%)에서 100% 수입(2021년)

또한, 식량농업기구는 당초 러시아(800만 톤), 우크라이나(600만 톤)의 2022년 3~6월 밀 수출량을 1,400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나, 우크라이나 내 항구 폐쇄, 수확·파종 등에서의 차질 및 러시아의 수출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수출량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예측하였다.

이사국들은 수백 만 명이 이미 기아를 겪고 있거나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농산물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식량 불안 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식량농업기구의 우크라이나 내 식량안보, 농업 생계 지원 등 인도적 대응과 노력을 지지하였다.

아울러, 이사국들은 식량농업기구가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로마 소재의 국제연합(UN)기구, 국제금융 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식량안보에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식량안보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취동위(屈冬玉) 사무총장은 지금은 2년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기후위기와 함께 분쟁 영향을 동시에 대처해야 하고, 현재 내년을 위한 파종 시기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하였다. 세계 식량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2008년의 식량 수출 제한과 같은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세계 무역 시스템의 개방성 유지를 강조하고, 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사태가 저소득 국가와 식량 상황이 취약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문제의 실행력 있는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며,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세계 식량 공급망의 기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식량원조를 비롯하여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FAO 특별 이사회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FAO 특별 이사회 개요

《 이사회(Council) 성격과 기능 》

▶ **(성격)** 총회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2년간 5회 개최)

▶ **(주요기능)**

ㅇ 총회 전 의제 검토 및 논의

ㅇ 지역총회, 기술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논의 결과 검토 및 권고

ㅇ 전략적 프레임워크, 중기계획, 사업예산안 등 검토 및 권고

▶ **(참가대상)** 49개 이사국(지역별 의석 배분), 임기 3년

ㅇ 우리나라 임기 : '21.6~'24.6월('21.6월 42차 총회에서 결정)

□ 169차 이사회 개요

ㅇ **개최 배경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20개 이사국 등 45개국 요청으로 긴급 특별 이사회 개최 결정

* FAO 일반 규정에 따라 이사국 중 15개국 이상이 요청 시 이사회 개최 가능

ㅇ **일시 및 장소** : '22. 4. 8.(금), 16:00~04:00(한국시간 기준), 현장 및 영상

ㅇ **참석** : 49개 이사국, 옵저버, 국제기구 관계자 등

* 주이탈리아대사관 현장 참석 / 농식품부는 영상으로 참석

□ 의제(안)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세계 식량안보와 FAO 권한(맨데이트) 내 관련 사안에 미치는 영향